



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http://www.emerics.org/ 2018. 09. 04. 인도·남아시아	「이슈&트렌드」 인도-파키스탄 관계 개선 움직임...중국도 건설적 역할 의지 표명 작성 EMERiCs 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
--	--

❁ 파키스탄 정권 교체 이후 조성된 화해 분위기가 인도-파키스탄 간 수자원 공유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로 이어지고 있음.

□ 나렌드라 모디(Narendra Modi) 인도 총리가 파키스탄 정권 교체 축전을 보내고 칸(Imran Khan) 신임 파키스탄 총리도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, 인도-파키스탄 양국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.

- 지난 7월 30일,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파키스탄정의운동(Pakistan Tehreek-e-Insaf)의 임란 칸 총재의 총리 당선에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.
- 모디 총리는 인도는 파키스탄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준비가 됐으며, 양국 간 분쟁을 해결하고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하였음.
- 임란 칸 신임 파키스탄 총리 또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음.
- 칸 총리는 이전부터 전쟁으로 카슈미르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양국 간 회담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, 선거 승리 연설에서도 양국 간 교역을 통한 지역 빈곤 퇴치를 역설한 바 있음.

□ 인도-파키스탄 양국은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인더스강 조약(Indus Waters Treaty) 이행을 위한 회담을 재개했음.

- 지난 8월 29일, 파키스탄 라호르에 위치한 NESPAK(National Engineering Services Pakistan)에서 양국 간 회담이 재개되었음.
- 인더스 강 조약은 세계은행(World Bank)의 중재로 9년의 협의 끝에 1960년 체결되었음.
- 이전까지 양국 수자원 위원회는 매년 2차례 회담을 갖고 현장 방문을 실시하기로 했으나, 파키스탄 측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성사되지 못해왔음.
- 양국은 잠무카슈미르 주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인더스 강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음.
- 이번 회담은 각각 삭세나(P K Saxena) 인도 측 위원장과 사이드 알리 샤(Syed Meher Ali Shah) 파키스탄 측 위원장이 이끄는 위원회로 구성되었음.
-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조약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인더스 상설위원회(PIC: Permanent Indus Commission)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.

❁ 중국은 인도-파키스탄 관계 개선에 건설적 역할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표명하였으나 정확한 의미를 밝히지는 않았음.

□ 중국은 인도-파키스탄 양국 정상 관계 개선 노력을 언급하며 중국이 양국 관계 개선에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하였음.

- 지난 8월 22일, 루강(Lu Kang)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인도와 파키스탄 정상 간 긍정적인 발언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음.
- 루 대변인은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남아시아에서 중요한 국가들이며, 양국 관계의 개선과 발전은 역내 안정과 평화, 번영의 핵심이라고 언급하였음
- 루 대변인은 중국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한 뒤 중국은 두 국가 모두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로서 양국 간 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, 역내 평화 유지를 강력히 바란다고 덧붙였다.

□ 그러나 중국이 수행하겠다는 건설적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.

- 건설적 역할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루 대변인은 “그저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오가고 양국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지역이 안정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다는 것이며, 이러한 관점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.” 라고 대답하였음.
- 건설적인 역할이 중재를 뜻하는 것이냐는 후속 질문에는 “어떠한 측면, 어떤 지역에서 중국이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 미리 판단할 수는 없다” 고 답변하였음.
- 2016년 인도 군부대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인도-파키스탄 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중국은 중립을 유지하겠다고면서도 국영 방송을 통해 양국 갈등 사이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음.
- 지난 6월, 뤼짜오후이(Luo Zhaohui) 주 인도 중국대사가 중국-인도-파키스탄 3자 회담을 제안하였으나 인도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음. **EMERiCs**

참고자료

- Hindustantimes, India, Pakistan agree on official visits to both sides of Indus basin, 2018.08.31.
- NDTV, Indus Waters Treaty Talks Between India And Pakistan Resume In Lahore, 2018.08.29.
- Livemint, India, Pakistan are said to plan talks over water disputes, 2018.08.27.
- The Economic Times, India, Pakistan to resume talks on Indus Waters Treaty in Lahore this week, 2018.08.27.
- The Economic times, China says willing to play 'constructive role in easing relations between India, Pakistan, 2018.08.22.
- India Today, China says ready to play constructive role to improve India-Pakistan ties, 2018.08.22.